

파이버프로, '한국9호스팩' 합병상장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 내달 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건 가결 시 3월 코스닥 시장 입성
- ▶ 합병상장 통해 글로벌 광섬유 계측·센싱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할 것

<2022-01-18> 글로벌 광계측·광센싱 솔루션 기업 파이버프로는 한국9호스팩과의 합병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은 “내달 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3월 코스닥 시장 상장 가능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1995년 설립된 파이버프로는 국내 유일 광섬유 센서 기술 기업으로 ▲광섬유 관성센서(FOG) 및 관성 측정 장치(IMU) ▲분포형 광섬유 센서 ▲PLC기반 광소자 등의 사업을 영위중이다.

파이버프로는 측정과 계측이 필요한 모든 산업영역에 적용 가능한 광섬유 센서 및 관성센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섬유센서는 세계 동급 최고 성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 최초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을 상용화했다. 현재 High-end급 관성센서를 우주항공, 방산시장 관련 제품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무인운송수단 등 4차 산업 시장 성장에 발맞춰 파이버프로의 광섬유센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K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 LIG넥스원 등 국내 유수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구글, Baker Hughes, Rogen group, SCHOTT 등의 손 꼽을 해외 기업에도 제품을 공급하며 공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파이버프로 관계자는 “2018년~2020년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1% 기록했고, 2020년 영업이익률은 14.9%에 달하며 기술 경쟁력 뿐만아니라 탄탄한 재무구조까지 갖춘 매우 안정적 기업” 이라며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광섬유 계측·센싱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요 동력을 확보할 것” 이라고 전했다.